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5)

- 서산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현재의 서산시(瑞山市)는 1995년의 행정구역 통합에 의해, 1989년에 서산군의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던 서산시와 서산군이 다시 합쳐진 것이다. 서산군은 1914년의 행정제도 개편에 의해 조선시대의 서산군·태안군·해미군이 합쳐져 서산군으로 되었는데, 1957년에 서산군의 정미·대호지 2개 면을 당진군으로 편입하였고, 1973년에는 당진군 정미면 여미리를 서산군 운산면에 편입하였으며, 1983년에는 고북면 대사리를 홍성군 갈산면에 편입하는 경역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1989년에 태안군이 분리(分離)·복군(復郡)되고,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되면서 서산군과 서산시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태안군을 제외한 서산시·서산군이 도농복합시의 서산시가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전의 서산시 지역은 서산과 해미 고을이 포함된다.

서산지역은 백제 때 기군(基郡)이었고, 신라 때에는 부성군(富城郡)이었으며,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인종 21년(1143)에 수령으로 현령을 두었다가, 명종 12년(1182)에 부성현의 호장(戶長)이 역모를 꾀하다 발각됨으로써 군을 폐하고 운주에 이속시켰다. 그 후 충렬왕 10년(1284)에 이 고을 사람인 정인경(鄭仁卿)이 왜

구 침입 때 큰 공을 세움으로써 서산군을 복구하고 수령으로 지서산군사가 부임하였다. 충렬왕 34년(1308)에는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하였다가, 충선왕 2년(1310)에 모든 목을 없애는 조치에 의해 서령부(瑞寧府)로 바뀌었으며, 뒤에 지서주사(知瑞州事)로 강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 이상의 고을에만 고을명에 ‘州’ 자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山’ 자나 ‘川’ 자로 바꾸는 조치에 의해 서주는 서산군(瑞山郡)으로 바뀌고 종4품의 군수가 부임하였다. 서산군은 숙종 21년(1695)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뒤에 복구되었다. 1895년 23부제에서 홍주부 서산군으로 편제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는 충청남도 서산군(3등군)이 되었다.

해미라는 고을 명칭은 태종 7년(1407)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정해현(貞海縣)과 여미현(餘美縣)을 합쳐 해미(海美)라 한 것이다. 정해현은 고려 태조 때 몽웅현(夢熊縣)의 아전 한씨(韓氏)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大匡)의 작호를 내리고 운주(運州, 후의 洪州)의 속현이었던 고구현(高丘縣)을 분할하여 정해현으로 만들어서 그의 본관(本貫)으로 삼았다. 이 정해현은 현종 9년(1018) 운주(運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여미현은 본래 백제의 여춘현이었는데, 통일신라 때인 경덕왕 16년(757) 여읍(餘邑)으로 고쳐 혜성군(擘城郡)의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초기에 다시 여미라 고쳤으며, 현종 9년(1018) 운주에 붙이었고, 예종 1년(1106)에 감무를 두었다. 이 정해현과 여미현을 조선 초기인 태종 7년(1407)에 합하여 해미로 고쳤으며, 정해를 그 치소로 삼았고, 태종 13년(1413) 현감을 두었다. 해미현은 23부제가 실시된 1895년(고종 32)에 홍주부 해미군이 되었다가,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해미군(4등군)이 되었고, 1914년 태안군과 함께 서산군에 병합되었다.